

농촌진흥청 '우리 부서 청렴클래스 한마당' 성료 ..청렴문화 확산 앞장

- 106개 부서, 전 직원 참여...청렴 실천 문화 확산 한마음
- 청렴 서약, 소통간담회· 공동 연수(워크숍) 등 부서별 특색있는 활동 펼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대상 ...우수 활동 5개 부서 선정·시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부서 청렴클래스 한마당'을 추진, 우수 활동 부서를 선정하고 9월 1일 시상했다.

'우리부서 청렴클래스 한마당'은 부서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의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참여형 청렴 활동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본청 및 소속기관 106개 부서는 부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렴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참여형 소통 활동을 펼쳤다.

먼저 부서별로 수평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 실천 서약문'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간담회, 짧은 영상(쇼트폼) 제작, 청렴 캠페인, 공동 연수(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부서 구성원들이 직접 청렴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청렴을 업무와 조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1차 실·국 및 소속기관 자체 심사와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참여도, 적극성, 창의성, 조직문화 개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 활동 부서 5개를 선정했다.

대상은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얻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와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가 받았다. 장려상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가 선정됐다.

농촌진흥청 윤의순 감사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 부서 구성원들이 조직 내 부패 유발요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부패는 낮추고 존중은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우리 부서 청렴클래스 한마당’ 우수 활동 부서 선정 결과

담당 부서	본청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감사담당관	윤의순 (063-238-0170)
		담당자	행정주사보	오수빈 (063-238-018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기관명	부서명	심사결과	비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대상	상금(50만원)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우수상	상금(30만원)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우수상	상금(30만원)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장려상	상금(20만원)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장려상	상금(20만원)